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and the need for Christian education experts*

Jeung-Gwan Lee
(Any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stud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professionalism in church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serious problem of church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toda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roblems of current church educ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problems.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e Korean church is facing crises. One of the crises is the decline in church membership and worship attendance. Another,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e crisis of church education,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in Sunday schools is plummeting, and man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Many of them are questioning the quality of church education leaders. The decline and demise of Sunday schools does not bode well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What the church needs to do to address these issues is to build up educational professionals. Leadership and professionalism are critical issues. Until now, the needs of church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have relied on dedication and life mission rather than professionalism. And these criteria were enough. It has been 34 years since the October 1989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to establish a system of educators. Howeve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and the system has not been changed to a system of educators.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 is for the Korean church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by utilizing educators for church growth and the restoration of Sunday school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nction, mission, and purpose of the church, the system of educators is requested to be established in the Korean church as soon as possible to fulfill the professional church education and educational pastoral mission. In response to this call, current Korean church education needs to change and innovate.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s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means that there is a need and urgency for professional educators as church education leaders.

Key Words

Church school,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Church education, Crisis, Professionalism, Korean church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위기와 기독교교육 전문가의 필요성

이정관*
(안양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교육 교육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교육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재 교회교육의 문제를 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 중 하나가 교회 신자와 예배 인원 감소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교회교육의 위기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교회 교육지도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감소와 존폐문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육전문가를 세우는 일이다. 지도력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요구는 전문성보다는 헌신과 사명에 의지한 교육이었다. 그리고 사명과 헌신이면 충분했다.

한국교회에서 교육사 제도도입과 교육사 제도는 1989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 결의 후 34년이 되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이나 교육전문가로의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교회가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교회 성장과 교회학교의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 교회의 기능과 사명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교육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회교육과 교육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히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현재 한국교회 교육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의 방향은 전문적인 교육으로 혁신이다. 즉, 교회교육 지도자로서 전문 교육자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에 있다

〈 주제어 〉

교회학교, 교회교육, 기독교 교육사, 위기, 전문성, 한국교회

I. 들어가는 말

2023년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신자 수 감소와 예배 참석인원 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와 전문적이지 못한 교회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회교육의 위기와 학생 수 감소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회교육의 위기로는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데 있다. 많은 청소년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교회교육의 제도와 전문적이지 못한 지도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학교 자체가 점차 감소와 함께 존폐를 걱정할 때이다. 교회학교의 감소와 존폐문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육전문가를 세우는 일이다. 지도력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그리고 다윗을 지도자로서 매우 훌륭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교회학교의 감소와 폐쇄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회교육 지도자로서 전문 교육자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요구는 전문성보다는 헌신과 사명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명과 헌신이면 충분했다. 이 사명과 헌신은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을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는 전문화 시대임은 분명하다. 전문성은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이 올바른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교육과 목회의 전문성이 갖춰져야 하는 시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재 교회교육은 전문화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교회교육의 전문화는 시대에 따른 흐름 때문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한 것이다. 현재 교회교육은 목회에 부수적이고 차선책 적인 목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지만, 교회학교의 활성화와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디렉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의 일관성과 책임성 적합성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교육 디렉터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교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맡겨야 한다(나삼진,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교육 교육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교육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재 교회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와 교회 교육지도자의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교육사 제도에서 교회학교의 발전과 계속 교육의 현황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회교육 지도자로서의 교육사 제도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도입 정착되고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교회교육 전문가인 교육사들이 교회교육 지도자로서 전담하여 전문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II.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교회학교 상황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성인 성도나 청소년이 교회로 돌아오는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학교가 폐쇄되었고, 교회학교가 소멸이 되어 가고 있다. 2022년 2월 8일 한국기독교일보는 2030년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한국기독교일보, 2022). 즉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학교 학생 수는 27만 5천여 명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0년의 경우, 17만여 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10만 9천여 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20세 미만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의 경우, 2016년 중고등부와 초등부, 유아·유치부를 합해 8만 5천여 명에서 2019년 7만 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역시 유아와 유소년의 수는 2019년 7만7,838명에서 2020년 6만 9,358명으로 8,480명이 줄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도 마찬가지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다. 합동측 총회교육개발원이 2020년 11월과 12월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다(한국기독교일보, 2022).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마디로 미래의 소멸 가능성보다 당장 생존을 염려할 정도로 현재 교회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유재덕, 2022) 교회학교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왔는데, 출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교육부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20일 고신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를 살펴보면 유년부가 38.7%, 초등부가 38.2%, 소년부가 46.4%, 중고등부는 34.7%가 감소 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대면 예배 금지 규제가 풀린 후에도 교회학교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는 웨슬리 블랙 교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7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심층 분석하였는데,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신뉴스, 2023). 즉 교회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다.

교회학교가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하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몇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 첫째는 학력 인구 저하에 따른 감소이다. 둘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이버 예배의 편안함과 집단활동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교육실행의 부재이다. 셋째는 계몽주의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문화 발달로 인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약화이다. 넷째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도 무시할 수 없다. 다섯째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이다. 신앙교육이 교회로 이관되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는 교회에서 교육시간의 부족이다.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은 1주일에 1시간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 나아가 전문성 결여로 교회교육의 교육현장이 침체되는 근본 원인일 것이다.

교회학교 학생 수의 급감과 함께 교회학교가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교육의 상황을 혁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교육 담당자와 목회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담임목사가 교회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교회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교육전도사로 임명이 된다. 성경과 신학을 배우기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임명된다. 설교학과 교회사를 배우기 전에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성인들에게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한다.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이해하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임명되어 교회교육의 책임을 지고 사역한다. 교회교육 지도자와 담임 목회자가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재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육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교육지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나삼진, 2013). 코로나 19로 인해 기독교 교육이 더욱 불확실하고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시하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판적 희망을 제안한다(주연수, 2023). 이 제안이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전문성 부재와 필요성

오인택 교수는 일찍이 1982년 한국교회 교육에 교육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제시하였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세분화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교육 직분의 전문화는 직분 수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오인택, 1982).

1. 교회교육의 전문성 부재

현재 한국교회 교회교육은 교육전도사가 맡아 교회학교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교육전도사 대부분은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으며, 노회의 목회자 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대부분 교육전도사는 신학교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적인 교회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잦은 이동으로 교회교육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교육의 전문성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교회교육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다시금 교육사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교육전도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신학교를 입학 하거나 졸업을 하면 바로 교육전도사가 되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신학적인 면에서는 일정한 전문성을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교육적인 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교육 지도자는 임시직이며, 비전임으로 전문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환경으로는 교회교육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목회환경에서는 결국 교육전문가들이 헌신할 자리가 없어지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교회와 교육의 미래가 없다(나삼진, 2014).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교육 전도자나 교사 대부분은 교회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교육현장을 지탱하기 힘겨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현재 교회학교의 위기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과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시점에서 현재 비전문가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전도사 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입학과 동시에 칭호는 전도사가 되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이 위임되는 것에 한국교회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교회교육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육전도사에게 교회학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학교는 교육전도사에게 목회훈련과 설교의 훈련으로 장으로 생각하고 사역에 임하는 당사자들과 교회의 모순된 실상을 두고 보고만 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교회의 심방과 행정 그리고 차량운행 등 교회 전반적인 일까지도 전담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목회나 설교 실습장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터이다. 어린 영혼들을 죽고 살게 하는 현장으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의 전쟁터이다. 그런데 교회는 값싼 인건비로 중요한 사역의 자리를 메꾸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이정관, 2009,

173).

또 다른 교회교육의 문제점은 현재 한국교회가 교육전도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교회마다 교육 목사나 교육전도사를 구하지 못해 교회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없어 보인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 미달 사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교육 교육자의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교회교육에 대한 바른 방향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위기에 처한 교회가 회복되고 발전도 성장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교육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즉 교회교육 전문가제도가 자리 잡히고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

2. 교회교육의 전문성의 필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단회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김희자 외, 1990). 복음선포 자체가 곧,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은 처음부터 본질적인 사명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교회의 교육하는 과제를 과거의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도 교육을 전담하는 전도사와 목사를 두고 있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도사를 그 기능과 책임에 따라서 교육사라고 부른다면 교육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직임에 틀림이 없다(오인택, 1982). 따라서 교회는 교회교육을 위해 특별한 소명과 은사가 있는 훈련된 사람을 교육 목사로 세워 전적으로 교회교육만 전담하고, 훈련 중인 교육전도사들과 전문 교사들을 훈련 감독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목사나 교육사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는 투자하고, 관리하고, 공인하는 교육전문가가 양성과정도 마련되어야 한다(이정관, 2009, 173).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식과 교육적인 안목을 갖고 교회교육 전반에 걸쳐 기획하고 관리 운영하며 평가하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사의 제도적 정착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용수, 1998). 그러나 현재 많은 학생이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고, 지금도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서 전문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들은 교회 교육현장에 있지 않다. 교육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 제도는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침체해가는 교회교육의 활력뿐 아니라 교회의 위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아울러 21세기의 교회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이다(이정관, 2009, 175). 전문성이 있는 교회교육으로 전환과 더불어서 신앙교육을 가

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실재는 앞으로 신앙교육과 교회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은 신앙교육보다 학교 교육에 더 치중한다. 시험 때와 입시생들에게는 교회보다는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전문화된 교육시스템과 교육전문가가 교회학교에서 학교식 기독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사가 부모에게 교사로서 능력 부여를 위한 부모교육 또한, 필요하다. 교회교육의 전문화가 부모교육을 통한 신앙교육의 가정으로 환원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끌 부모의 신앙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김재우, 2022).

이를 위해서 교회교육의 개혁과 전문화 요청은 고도화되고 전문화가 될수록 전문화된 인력과 넓은 범위의 인력 활용을 요청하게 된다(김희자 등, 1990). 전문적인 교육사의 자질은 충분한 신학적 교육학적 지식과 숙련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조정 등으로 인한 자기발전 노력과 자기 분석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만남으로 영적 성장을 통해 신앙과 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김희자 등, 1990).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교회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교육전문가 교육사

한국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생활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교육의 전문화와 교육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개념의 형성과 역할 규명이 매우 시급하다(김희자 등, 1990). 교회교육 전문가는 교회교육을 전담하는 전공자로서 안수를 받은 교육 목사와 평신도로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안수받지 않은 자를 교육사로 부른다. 교회교육 지도자로서 교육전문가에 대한 자격은 소명감과 기독교 교육전문가, 리더십, 교육사역자의 역할을 교육행정가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박경순, 2005). 그리고 나삼진은 교육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교회교육 전문지도자는 교회교육과 청소년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교육 지도자는 교회학교에서 예배 인도와 설교, 그리고 성경공부와 신앙교육 등을 통해 교육목적을 성취해야만 한다. 셋째는 교회교육 지도자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교회교육 지도자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개발과 더불어 교재 분석과 채택의 책임이 있다. 다섯째 교회교육 지도자는 교육행정가로서 교사의 모집과 훈련,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교회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사역이다. 일곱째, 학생 리더를 발굴하고, 지도력을 개발해야 한다. 여덟째,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 전도해야 한다(나삼진, 2003). 또한, 교회학교 교육전문가는 교사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사명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V. 기독교 교육사 제도의 도입과 역사

교회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사는 미국교회에서 도입되어 시작되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경제공황이 시작되었다.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과 함께 시민들에게 자동차가 공급되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게 되면서 교외로 나가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데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청소년 도덕적 해이와 비행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신앙교육과 경건 생활을 지도할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교회적·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사라는 전문직이 도입되었다.

1. 미국교회의 교육사제도 도입

미국교회에서 교육사 제도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직업으로서의 교육사 혹은 교육 목사 지위는 1903년 종교교육협회(the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 조직과 함께 시작되었다(Anthony, 2001, 471). 미국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 전문직의 요청에 따라 1906년 미국 피츠버그의 그리스도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임스 톰슨(James V. Thompson)을 교육사로 임명한 이래 교육사 제도는 각 교회로 급속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대형교회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교육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Furnish, 1976, 22). 1909년에는 여러 교회에서 '종교교육사(director of religious education)'라는 직함으로 교육전문인을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1910년 종교교육협회의 주관으로 첫 번째 전국 종교교육사 대회(The First National Meeting of Directors of Religious Education)가 개최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각 교단 신학교와 기독교 사립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전공의 석사과정(M·R·E)이 개설되어 교회교육의 전문직 수행을 위한 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 1936년에는 교육사의 자격규정이 제정되었다. 1948년에는 미국 감

리교회, 1959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교육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다(고용수, 2003).

교육사 제도의 태동에 공헌을 한 사람은 당시 종교교육협회의 회장직을 맡은바 있는 헨리 코프(Henry F. Cope)였다. 그는 1910년 종교교육협회(R.E.A)의 7차 총회에서 교회교육을 위한 평신도 전문직을 위한 원칙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권용근, 2003). 도르띠 퍼니쉬(D. J. Furnish)는 미국교회에서 전문적인 신앙교육과 교육 지도력이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교회 부흥회가 사람을 모으는데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특별히 청소년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심했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도울 전문적인 교회교육 제도가 필요했다. 셋째, 듀이(J. Dewey)와 코우(G. A. Coe)의 진보주의자의 교육 사상과 심리학의 출현으로 연령에 따른 세대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학습방법 개발이 요청되었다. 넷째, 성경 해석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Furnish, 1976, 22).

교육사 제도는 교회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다. 따라서 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당시 교회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자 중에는 많은 교사가 교회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교회교육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교육학, 성서학, 학습자 이해, 교육 심리 등... 교육지도로서의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함으로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춘 삶을 훈련하여 교회교육을 감당하게 했다(권용근, 2003). 미국교회에는 교육 목사와 교육사 두 가지 명칭이 있다. 교육 목사는 목사안수가 꼭 필요하지만, 교육사는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 내에서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였다. 교육사들의 사역 범위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모든 교육계획과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도 참여했다.

2. 한국교회의 교육사 제도

한국의 교육사 제도의 도입 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 초기에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귀국한 기독교 교육 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 계명대학교, 총신대학교 등이 기독교교육과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기독교교육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독교 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 교육전문가를 배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각 교단은 교육 전문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회 내 합법적인 교육지도자로서 지도력 수행의 기회가 차단되었다. 그래서 일부 극소수의 기독교 교육전공자들은 신학 공부 후 목사의 직임으로 교육적인 목회를 시도할 뿐이었다(고용수, 2003).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1987년 11월 ‘교단의 발전과 교회교육의 전문성’이란 주제 아래에 심포지엄을 가졌다.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1989년 11월 제18차 입법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현재 교회 내 전문직으로 교육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1995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되다가 2000년 85회 총회에서 ‘교회교육사’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가결되었다. 그 후 총회 교육부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른 후속 과정을 거쳐 2003년 11월 4일에 교회교육사 고시를 치르게 되었다(고용수, 2003). 교육사 제도는 1989년 감리교를 시작으로 2000년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85회 총회에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사가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각 교단은 개 교회에 기독교 교육사 제도 정착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감리교를 비롯한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학 전공자들이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도 현재까지 명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커다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실망감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개 교회는 교회교육에 반드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봉착하여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전문가는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오랜 기다림에 지친 기독교 교육자들이 조화를 이루는 팀 목회가 가능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김소연, 2013).

이 시점에서 교회 교육전문가에 대한 논의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논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함께 온 교회학교의 학생 수의 감소와 폐쇄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3. 한국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한 교육사 제도

한국교회에서 교육사 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교육사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교회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교회는 몇 개개의 교단에서 교단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전문가가 교육하는 교육사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없는 것일까? 그 책임과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총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있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에게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 있는 것인지 물음의 답은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교육사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단도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단도 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든 아니든 교육사 제도는 잘 시행되지 못한다. 문제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전공한 전공자들이 교육현장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빙 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준기 교수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문제점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그중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였다(한준기, 1990, 137-145). 그러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전공자들이 교육현장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은 교회교육에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많은 수의 기독교 교육 전공을 하고 졸업한 교육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교회에 많은 수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인재들이 있지만, 교육전문가로 남아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이정관, 2020).

둘째, 이정관은 교회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부족을 말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육목회에 대해서 이해와 앎 그리고 배움으로 교육목회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전문적인 교육능력함양의 노력이 부족하다.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선 그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올바르게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선 교육목회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교육적인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오늘날 교육은 목회 영역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이정관, 2020). 따라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교회학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 교회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교회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회 재원을 더 많이 지원한다면, 미래의 교회학교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교회학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한만오, 2016).

V. 교육혁신 과제로서 교육사

1. 교육혁신 방향과 이유

교회의 기능과 사명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교육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회교육과 교육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히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현재 한국교회 교육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그 방향은 전문적인 교육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회와 교회학교의 위기 상황에서 교회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위기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교육의 혁신이 요청된다. 가장 우선되는 혁신은 교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 도입이다. 교회학교의 전문성 도입은 교사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그리고 교육 기자재 개발과 시설개선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 효과로 교육의 질과 역량이 크게 개선되고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학교를 위한 교육전문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 교육전문가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부여된 교육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교육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자기 성찰과 미래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에 따른 교육전략 수립과 함께 실행하고 이끌어 갈 교육전문가의 필요성과 함께 요청된다. 교회교육의 전문가 요청은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 학습자들이 계몽주의의 이성과 합리, 과학의 발달과 개인주의로부터 시작한 포스트모던 적인 사고와 심리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르는 교회교육의 전문성 부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목회 차원에서 교육목회의 전문적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요청된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적 표준의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교사훈련을 실행하고,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그리고 교육 기자재와 시설개선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자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네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가정으로 환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적 전문가 요청된다.

그리고 교회는 교육역량혁신과 강화를 위해서 교회교육과 관련된 목회자들과 일선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 집단이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교회교육의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 전문 교사 양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경제적인 지원과 목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정관, 2020). 교육적인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혁신의 과제로서 교육사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학교의 감소 내지는 폐쇄와 함께 교회학교 학생의 급감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교회 상황에 맞는 교회 교육전문가 제도와 교회교육 전문인 육성을 위해 제안을 하면, 교회학교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출산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부재는 교육전문가의 부재와 더불어 교사 제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교육의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신앙 성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요즈음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학생이 많다.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갖게 하는 것은 교육이다. 즉,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사는 주어진 교육적 사역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앎과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재성의 원리에 따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강희천, 1990).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지도자와 교사에 의한 전문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교회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전문교육인 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평신도로서 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에서는 교육사라는 새로운 직임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고(한미라, 2005, 147), 교육의 혁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육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독교 교육자이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교회나 교단에서 미리 이 직임을 공식화하고 이 직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단과 개교회는 교회들이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개교회가 교육에 대한 전문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가 현실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단은 교회교육의 사역 구조를 보다 효율적인 개선과 교육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작업을 위해 전문적인 사역자들의 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사에 대한 필요와 인력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김희자 등, 1990). 개교회는 교육사에 대한 담임 목회자들의 필요성을 부응하고, 교회 사명으로서 교회교육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보장해주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임 목회자와 교육목회의 혁신

한국교회에서 교육사 제도는 1989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 결의 후 34년이 되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이나 교육전문가로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교육전문가에 대하여 교회와 담임 목회자의 이해 부족과 관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는 전도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편안함과 짝 인건비와 교회의 모든 허드렛일까지 감당하는 편안함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교육과 현실을 바라본다면 교육전문가제도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교육 목회적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에 도입 실행되어야 한다.

강희천은 교육목회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교육목회란 교육목회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첫째 교육목회와 관련된 성서적 지식 및 교회의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둘째 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속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의 전문지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행되지 않으면, 신앙공동체 구성원의 성숙을 체계적으로 돕는 교육목회라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강희천, 1990). 그리고 나삼진은 담임목사의 교회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교회 교회교육의 촉발 자로서 책임이 있다. 둘째 교회교육 전문 인력의 선택과 관리의 책임이 있다. 셋째 교회의 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예산을 배정하는 책임이다. 넷째 담임목사는 교회교육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사역하는 지도자와 교사들을 격려해야 한다. 끝으로 담임목사의 직접적인 교육 활동도 필요하다(나삼진, 2013).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은 목회자 대부분이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전도사에게 일임한 상태이다. 혹 담임 목가가 교회교육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있더라도 신앙 성장과 내적이 성숙에 관심보다는 외적인 출석 인원의 많고 적음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담임목사와 교육사가 공동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육 전문직이 담임 목사의 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신학적, 학문적인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목회는 목회의 권위를 축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고도의 전문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지체 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김희자 등, 1990). 한춘기는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사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사를 한정된 부서의 교육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 교회교육의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맡게 함으로써 교회교육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한춘기, 1999). 즉 공동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육목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VI. 전문화 교육의 방향과 과제

1. 과제로서 교육자 제도

교회 교육전문가라는 전문직인 교육사를 한국교회 내에 수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첫째, 담임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교육 전문직에 대한 교육 목사 또는 평신도 사역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목회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교회 교육전문가에 대한 공동목회의 개념이 정착되어

야 한다.

셋째, 교회 교육전문가의 처우 문제이다. 교육전문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회의 고급인력으로, 일반 목회자에 상응하는 전임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학교육의 문제이다. 신학교의 교육과정이 교회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전문 교육체제로 전환해서 실시하는 일이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교회 교육전문가 트랙이 정착되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사회는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로 교회교육도 공동목회의 시각에서 교육목회 영역을 적극 수용 현행 낙후된 교회학교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교회교육 전문직에 대한 교회의 수용은 시급히 요청된다(고용수, 2003). 윌리엄 고에츠(William R. Goetz)는 교회학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격을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원과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시간과 근면성 그리고 충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성숙성과 영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향학열과 청소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며, 교회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알고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Goetz, 1972, 283-285).

2. 여성 교육사 문제

많은 여성 헌신자의 경우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여전도사의 길을 간다. 물론 한국 감리교나 예장 통합 등 몇 교단에서 여성 안수의 길이 열려있다. 여성 안수가 금지되어있는 경우 신학대학원 재학 중 혹은 학업을 마친 후 교단을 이명 하는 경우가 많다. 안수 이후에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역 현장에서 성차별로 사역을 접는 경우도 많다. 교육전문가 제도는 한국 교계에서 여성의 교회교육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교회에서도 교육사가 여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미국교회에는 헨리에타 미어즈(Henrietta C. Mears), 루이스 르바(Lois E. LeBar) 등 유능한 기독교 교육사들이 있었다. 1938년 기독교 교육 전문가의 75%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자 사역자를 선호했다(Gannett, 1992). 오늘날 기독교 교육전공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교육사 제도도 도입 초기에는 여성 교육사 활동이 활발하겠지만, 정착 단계에서 교육과 목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나삼진, 2014).

3. 교육사의 직무

교육목회의 전문성의 문제는 예산과 교사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이러한 전문적인 활동을 누가 실행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지금까지는 주로 목회자의 책임이거나 교육전도사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나 전도사들은 성경 신학이나 조직신학에 대하여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다양한 학문과 연계를 해야 하는 전문적인 교육목회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한국교회에서 목회와 교육은 같은 연장 선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교육목회의 전문적인 성격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전도사, 교육목사에 해당하는 교육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들이 활동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목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청된다(강희천, 1990).

교회교육에서 전문 교육사가 활동하는 영역과 직무로는 첫째 교육목회의 표적과 목표 선정을 하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둘째 교육목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과 교육계획 수립과 함께 지도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계획단의 조정과 교육현장 간의 조정한다. 교육내용이 유치등부와 중고등부에서 반복되거나 같은 내용이라도 각각의 단계에 적절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사장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현장 속에서 교육의 깊이, 교사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 즉,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육목회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다(강희천, 1990). 다섯째는 교회학교의 구조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교육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단, 평가한다. 여섯째 담임목사의 교육철학과 목회방침 그리고 총회 교육목적과 방향에 따라 교회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일곱째 각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협의함으로써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교회 내의 인적자원 중에서 교사들을 발굴하고 양육과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교사로 임명하고 함께 교육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아홉째 교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교육부서 간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 열 번째 교회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과 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미라, 2005, 154)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교육목회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 활용(이정관, 2020)

지금까지 교회교육의 지도자는 전문적이지 않았다. 그동안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

은 교사들이 교사와 신학대학과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신학도들이 교육전도사로 임명되어 자연스럽게 교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교육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학습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요구한다. 더불어 교회교육에도 교육 전문성을 요구된다. 한준기 교수 등 기독교 교육 연구자들은 교회교육 전문가가 부족과 부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재적으로 한국교회 안에는 교육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많은 교육전문가가 있다. 현재 그들은 교회학교 교육현장에 교사나 교육사로 참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과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사장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간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또는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고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교회학교를 떠난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교육현장을 떠나는 교육전문가인 기독교 교육전공자에 관심과 인식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는 먼저 교회 안에서 교육전문가를 찾아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식하고 교회교육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찾아내어 교육지도자로 세워주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서 교육사 제도를 일부 교단에서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교육사 제도를 범 교단 적으로의 시행이 절실한 형편이다(이정관, 2020).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등 모든 교단은 교육사 제도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들에게 교육 전문 사역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신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하면 교회 교육현장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특성화가 된 교회교육 전문 사역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전문 사역자 제도의 도입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게 됨이 교회교육의 발전과 교회학교가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교단과 학교는 교회의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지도자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서의 실천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실천적인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과 뒷받침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교회교육 전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얼마나 강도 높고, 현실적인 교육이 되느냐가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로서 교육 전문 목회자 양성을 위한 목회학(M. Div)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일반 목회자와 교육목회자를 구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단과 대학과 대학원은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약과 협력 등이 필요하다. 교육 전문가제도의 도입은 한국교회 교육을 잘 감당할 교회교육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와 더불어 교회학교의 회복과 성장을 기

대해 본다. 그리고 교육사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필연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교육사의 제도적인 정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을 누릴 것이다(오인탁, 1982). 그 축복은 교회학교의 성장과 회복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회복이다.

VII. 나가는 말

한국 교회교육의 비전문적인 교육제도와 비전임 교역자의 교육으로는 다음 세대를 효과적으로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교회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나삼진, 2014). 현재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교육의 혁신이다. 교회교육의 혁신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기 위하여 교단과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체계화된 기독교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교회교육 전문가 트랙을 등 혁신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회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교회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궁극적으로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0). 교육목회와 교육사 제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10, 289-297.
- [Kang, H. C. (1990). Educational ministry and educator system.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and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Yeonsinwon Pastor's Theological Seminar Lecture Notes*, 10, 289-297.]
- 고신뉴스 (2023). 교회학교 절벽현상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신뉴스**, 2023, 1, 20.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 2023, 12, 15.
- [Kosinnews (2023). "What should we do about the church school cliff phenomenon?" *Kosinnews*, 2023, 1, 20.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2>. 2023, 12, 15.]
- 고용수 (1993). 교육목사와 교육사제도. **교육교회**, 201, 27-29.
- [Ko, Y. S. (1993). Minister of Christian education and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Education Church*, 201, 27-29.]
- 고용수 (1998). 교육목회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교회**, 261, 2-7
- [Ko, Y. S. (1998). Professional manpower for educational ministry. *Education Church*, 261, 2-7.]
- 고용수 (2003). 이시대는 전문화된 교육사를 원한다. **교회와 신앙**, 2003, 5, 21.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0> 2023, 11, 6.]
- [Ko, Y. S. (2003). This era wants specialized educators. *Church and Faith*, 2003, 5, 21.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0> 2023, 11, 6.]
- 김소연 (2013). 한국 교회 교육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교육정보학회**, 38, 235-260.
- [Kim, S. Y. (2013). Current status of DRE system in Korean Churches and Its Task.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8, 235-260.]
- 김재우 (2022). 코로나 19시대의 한국교회 교육부 여름 사역 동향 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독교교육논총**, 71, 277-303.
- [Kim, W. (2022).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of summer camp trends of the education ministry of Korean Church in the 10th age of COVID-19 : from 2020 to 2022.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227-303.]
- 김희자, 강성애, 최혜경, 한제희 (1990). 한국 장로교회의 교육(목)사 실태연구. **기독교교육연구**, 1-1, 157-227.
- [Kim, H. J., Kang, S. A., Choi, H. K., Han, J. H. (1990). Study on the educational (pastoral) histor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Research in Christian Education*, 1-1, 157-227.]
- 나삼진 (2013).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 교과 분석과 교회교육 전문가 양성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36, 169-193.
- [Na, S. J. (2013). Analysis of Christian education courses at theological seminaries and tasks for the training of Christian education professionals in South Korea.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169-193.]
- 나삼진 (2014). 한국교회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 방안 연구. **성경과 신학**, 71, 59-84.
- [Na, S. J. (2014). Strategies to train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as professional educator in the Korean church. *Bible and Theology*, 71, 59-84.]
- 박경순 (2005). 교회교육 지도자로서 교육사역자의 자격과 역할. **교수논총**, 17, 133-154.
- [Park, K. S. (2005). Qualifications and roles of educational ministers as church education leaders.

- Professor's Journal*, 17, 133-154]
- 오인택 (1982). 교육사제도의 교육적 요청과 이론적 근거. **교육교회**, 9, 349-354.
- [Oh, I. T. (1982). Educational requests and theoretical basis for the educator system. *Education Church*, 9, 349-354.]
- 유재덕 (2022).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72, 7-24.
- [Yu, J. D. (2022).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worl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7-24.]
- 윤광식 (2020). 2030년 주일학교의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 전망. **한국기독일보**, 2020, 2, 8.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 2023, 11, 4.
- [Yoon, K. S. (2020). Sunday school is expected to disappear by 2030. *Korea kidodkilbo*. 2020, 2, 8. Retrieved November 4, 2023. from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 February 8, 2020.]
- 이정관 (2009). **청소년교육**. 서울: 삼보아트.
- [Lee, J. G. (2009). *Juvenile education*. Seoul: Sambo Art Book Publishing.]
- 이정관 (2020). 21세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64, 81-107.
- [Lee, J. G. (2020).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81-107.]
- 주연수 (2023). 코로나시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언캐니(Uncanny)와 성육신적연대. **기독교교육논총**, 74, 33-55.
- [Joo, Y. S. (2023). Public practice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ovid-generation: Uncanny and incarnational Solidar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4, 33-55]
- 한만오 (2016).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25-31.
- [Han, M. O.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 Based on the survey on the teachers in church school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5-31.]
- 한미라 (2005). **개신교교회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an, M. R. (2005). *Protestant church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한춘기 (1990). **한국교회와 교육**.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Han, C. K. (1990). *Korean church and education*. Seoul: Chongshin University Press.]
- 한춘기 (1999).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기독교교육사 : 해방(1945년) 이후 교회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 119-145.
- [Han, C. K. (1999).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by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pdong) : Focusing on church education after liberation (1945).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 119-145.]
- Anthony, M. (2001).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BookHouse.
- Furnish, D. J. (1976). *DRE/DCE-The history of professional*. Nashville: Christian Educator Fellow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Goetz, W. R. (1972). Adult leaders for youth., *Youth and the church*. Irving R. G., & Zuck, R. B. (Eds). Chicago: Moody Pres, 280-292.
- Gannett, L. (1992). The female Christian education specialists, Lawson, M. & Chiyn, R. Jr. (Eds), *Directing Christian Education: the Changing Role of the Christian Education Specialist*. Chicago: Moody Press.